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9호 【루계 제2540호】

주체108(2019)년 5월 4일 토요일 음력 3월 30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자주로 일관된 김정은각하의 시정연설

여러 나라 정당, 사회단체들에서 지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을 지지하여 여러 나라 정당, 사회단체들이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에서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에 맞서 자립, 자력의 기치높이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시정연설에는 북남관계의 지속적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 조미관계개선,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를 위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원칙적립장이 명백히 천명되여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김정은**동지께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앞길은 밝고 창창하다.

마쟈르로동당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시정연설을 지지한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환영한다, 사회주의위업실현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고 성명하였다.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각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현시기 조선인민앞에 나서는 투쟁과업과 방도들, 북남 및 조미관계 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우리는 자주로 일관된 그이의 연설을 지지한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자력으로 부강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강국의 리상과 목표를 실현해나가리라고 믿는다.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최고강령이며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라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 천명하신 웅대한 강령들이 실현되여 조선은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자주의 강국,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나라로 더욱 위용떨치게 될것이다고 성명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국련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견지하여야 할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또한 모든것을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면서 조선식, 조선의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자기의 힘으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리라고 믿는다.

본사기자

조로친선관계발전의 새로운 력사를 펼치시여

조선과 로씨야는 친선의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린방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얼마전 로씨야련방을 방문하시고 력사적인 조로수뇌회담을 진행하시였다.

조로 두 나라는 오래전부터 자주, 평등,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면서 친선의 뉴대를 강화하여왔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로친선관계는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발전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로씨야련방 뿌찐대통령과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을 진행하시여 조로친선협조관계를 두터이하시였다.

두 나라 령도자들에 의하여 마련된 조로공동선언, 조로모스크바선언과 2000년 2월 조선과 로씨야련방사이에 체결된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조로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되게 새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의의를 가지는 리정표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에 조선을 방문한 로씨야련방 외무상을 만나시고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친선협조관계를 쌍방의 리익에 부합되고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속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후 그이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을 방문한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을 접견하시고 조로친선관계발전에 활력을 더해주시였다.

얼마전에 진행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씨야련방에 대한 친선방문은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정세하에서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부합되게 더욱더 승화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일대 사변으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뿌찐대통령과의 력사적인 첫 상봉을 통하여 훌륭한 친분관계를 쌓으시고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친선의 뉴대를 일층 강화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고귀한 전통을 이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조로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것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응당한 책임이라고 하시면서 선대령도자들의 뜻을 받들어 조로관계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결심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을 통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로씨야련방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대한 고비에 직면한 조선반도정세추이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조로 두 나라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려정에서 전략적의사소통과 전술적협동을 잘해나가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진행하신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에 대하여 세계의 언론들은 《**김정은**위원장께서는 대국외교를 펼치신다.》, 《가는 곳마다 모든 대국지도자들이 이렇게 성대히 맞이하는것을 보면 **김정은**령도자는 희세의 걸출한 령도자이시다.》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이 전통적인 조로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 사변으로 된다고 전하였다.

출중한 정치실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조로친선의 뉴대는 더욱 두터워지게 되였으며 공화국의 존엄과 대외적권위가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로씨야련방에 대한 첫 방문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앞에, 세계의 자주화위업수행에 쌓으신 고귀한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송정수

조선을 사회주의강국으로 떠받드는 원동력—일심단결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강조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국의 위용을 떨쳐가는 공화국의 자랑찬 모습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찬양하고있다.

브라질주체사상연구쎈터 인터네트홈페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오늘날 조선의 현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고있다.

한두해도 아니고 수십년간이나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맞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할뿐아니라 사회주의강국에로 비약하고있는 근본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조선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에 대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였기때문이라고 일치하게 말하고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뜻을 이어 온 나라를 사랑과 정이 차넘치는 일심의 화원으로 더욱 전변시켜나가신다.

이러한 조선의 현실을 경이적이라고밖에는 달리 말할수 없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령도자와 인민이 혈연의 정을 맺고 사는 나라는 아마 조선밖에 없을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들을 하늘처럼 내세워주시는 령도자를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하늘과 태양으로 조화되는 이 숭고한 관계를 조선인민은 하나의 대가정이라고 부르고있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캄보쟈의 아까뻬통신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국가령도자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하지만 령도자는 인민을 생각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그리워하는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인민생활을 위하여 마음쓰시고 인민들은 그이를 만나뵈오면 감격을 금치 못해하며 열광적으로 환호한다.

령도자는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며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것이 바로 조선의 현실이다.

조선의 일심단결은 이 나라가 가장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하는 비결이다.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씨 조선인민의 친우협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편집하였다.

조선은 령도자와 인민의 관계가 매우 특이한 나라이다.

인민은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친어버이로 모시고 따르고있다.

령도자를 만나뵙는것을 일생의 소원으로 여기고있으며 만나뵈오면 남녀로소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짓는것은 결코 권력의 힘으로나 강요로 지어낼수 없는 진실한 모습이다.

에짚트신문 《알 아흐바르 알 마싸이》는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정치철학은 숭고한 인민관을 출발점으로 하고있다.

인민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시는 그이께서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도 제시하시였다.

인민을 이처럼 신성시하고 절대적으로 떠올리신데 그이의 정치철학의 특징이 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정치철학의 가장 철저한 구현자이시다.

민주꽁고신문 《러 누벨 옵쎄르바떼르》는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중심으로 철통같이 뭉친 조선의 일심단결은 미증유의 힘과 기적으로 조선이라는 국호를 떠올리고있다, 이것은 조선을 사회주의강국으로 떠받드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조선이야말로 세계의 초점을 모으는 불패의 강국이다고 서술하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제15차 전국기계설계축전 개막

제15차 전국기계설계축전이 개막되였다.

축전에는 전문설계기관, 교육, 과학연구기관을 비롯하여 전국의 110여개 단위의 설계일군,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기술자, 3대혁명소조원들 등이 참가하였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기계설비설계와 자연에네르기리용에 관한 설비설계, 형태도안을 비롯한 650여건의 연구성과들이 축전에 출품되였다.

축전기간 설계의 과학화, 정보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계설계전시, 설계경연, 현상모집, 선진설계기술발표회 및 첨단기술자료보급 등도 진행된다.

개막식이 4월 29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다.

임철웅내각부총리, 양승호기계공업상, 관계부문 일군들과 축전참가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돌아보았다.

봄철승마애호가경기 진행

봄철승마애호가경기가 우리 나라 마술협회의 주최로 4월 21일과 28일 미림승마구락부에서 진행되였다.

장애물뛰여넘기경기, 승마유희경기, 애호가경마로 나뉘여 진행된 이번 경기에는 협회회원들과 승마애호가들이 참가하였다.

장애물뛰여넘기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평시의 승마운동을 통하여 련마한 높은 말조종기술을 발휘하여 장애물의 넘기와 착지를 신속정확히 수행하였다.

부모들과 함께 유희경기에 참가하여 좁은 주로와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재주를 뽐내는 어린이들의 모습도 경기분위기를 더욱 이채롭게 하였다.

애호가경마에서 기마수들이 박차를 가하며 주로를 쏜살같이 내달리자 관중들은 환성을 올리며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경기에서는 미림승마구락부 기마수들의 경마에 대한 추첨도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로동자가 앞장서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리행하자

5.1절 129돐기념 북남로동자단체 공동성명

오늘 우리는 전세계 로동자의 국제적명절인 5.1절 129돐을 맞으며 북남의 로동자가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길에 앞장서겠다는 굳센 의지를 가슴뜨겁게 선언한다.

지난 보수《정권》시기 지속된 랭전시대를 방불케 하는 갈등과 적대의 시대로 하여 우리 로동자를 비롯한 온 겨레의 고통은 날로 커만 갔다.

민족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백지화되고 민족화해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아픔 역시 이루 형언할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 기나긴 고통을 넘어 북과 남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새로운 평화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전세계앞에 선포하였다.

기적과 같이 탄생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으로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와 자주통일을 열어나갈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우리는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온 겨레의 헌신적노력에 련대를 전하며 2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북남로동자의 굳센 련대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의 선두에서 언제나 함께 나아갈것을 선언한다.

1. 우리 로동자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일치단결하여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의 활로를 개척해나갈것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지 벌써 한해가 지나고있다.

그러나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념원하는 온 겨레의 의지와 달리 오늘의 현실은 밝지 못하다.

북남화해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재개는 계속 미루어지고 지난해에 합의한 동, 서해선철도 및 도로련결 역시 진척되지 못하고있다.

북남긴장의 근원인 남조선 미국합동군사연습도 계속되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평화문제를 저들의 패권전략에 리용하려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 의한것이며 한편으로는 북남선언리행을 모든 과제의 최우선으로 삼고있지 않기때문이다.

북남 전체 로동자는 현재의 답보상태를 끝장내고 선언리행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용약 떨쳐나설것이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는 긴장과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북남의 로동자가 앞장서서 선언리행의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다.

민족의 리해와 요구를 가장 중시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단결하여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기관차가 될것이다.

2. 우리 로동자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견결히 맞서 싸워나갈것이다.

평화와 번영, 자주와 통일의 새시대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이 땅의 분단에 편승하며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시대에 역행하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은 오늘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정당성을 음해하고 리행의 앞길을 결사적으로 막아나서고있다.

더이상 두고 볼수만은 없다.

우리 로동자가 앞장서서 분단의 고통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고 민족의 리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견결히 맞서 싸워나갈것이다.

당면하여 4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실천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북남로동자들은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 있을것이다.

3. 북남로동자의 련대성을 더욱 공고히 하며 새로운 높이의 로동자통일운동을 개척해나갈것이다.

북에 있건 남에 있건 로동자는 하나다.

사회발전의 주인으로 일어서려는 의지, 갈등과 대결을 넘어 화해와 단결로 나아가려는 의지, 민족과 력사의 요구에 누구보다 먼저 나서려는 의지, 이것이 바로 북남로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성이다.

이로부터 북남의 로동자는 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에서 련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북남의 로동자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밝혀준 길을 따라 로동자통일운동을 더욱 발전시켜나갈것이다.

로동자통일운동은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에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는 통일운동의 정치적, 대중적, 조직적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을 확대해나가는데 적극 기여할것이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전국민주로동조합총련맹
《한국로동조합총련맹》

2019년 5월 1일

남조선청년단체

자주와 평화실현을 위해 투쟁할 립장 표명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4월 26일 청년민중당이 《자주평화 한반도만들기 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이날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 결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진 단체는 조선반도의 자주와 평화실현을 위해 투쟁할 립장을 밝혔다.

이어 회견문이 랑독되였다.

회견문은 판문점선언문에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리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확약하였다고 밝혔다.

《한》미공조가 아니라 자주적인 립장과 태도를 당당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자주와 평화가 진정으로 실현되는 그날까지 투쟁해나갈것이라고 회견문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사의 새시대를 이끄시다

온 겨레와 전세계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 때로부터 어느덧 1년이 되였다.

잊지 못할 판문점의 언덕에 마음을 세워보니 력사의 그날 **김정은**위원장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여 소나무를 심으시면서 사시장철 푸른 소나무의 강의함만큼이나 강의한 정신으로 우리 함께 앞날을 개척해나가자고 하시던 뜻깊은 울림이 금시런듯 메아리쳐온다.

정말이지 되새겨볼수록 열화같은 민족애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앞장에서 개척해나가시는 절세위인의 거룩한 세계가 빛발쳐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평화번영의 새 력사를 펼치시여

그것은 꿈이 아닌 현실이였다.

전광석화, 상전벽해와도 같이 불과 반년남짓한 기간에 줄기차게 이어진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 장쾌한 봄시위이런듯, 풍요한 가을의 환희런듯 꿈같이 받아안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국제경기장들마다에서 민족의 기상 힘있게 떨치던 북남단일팀의 장한 모습이며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통일열기를 북돋아주었던 북남예술인들의 공연무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가 깃들어있는 땅이였어도 외세가 강요한 분렬의 고통과 아픔속에 장장 70여년이나 몸부림쳐온 삼천리였다.

바로 그러했던 이 땅이 화창한 4월의 봄계절과 더불어 온갖 풍운을 맞고보낸 쓰라린 아픔을 훌날려버리고 끝없는 환희와 희망의 새 기운을 안고 태동하게 될줄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하였다.

력사적인 4월 27일 **김정은**위원장님께서 평양이나 서울이 아닌 이 세상 가장 첨예한 두 극이 대치하고있는 판문점을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장소로 정하신것은 그대로 하나된 조국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시려는 그분의 숭고한 민족애의 발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4월의 판문점에서 하신 말씀들을 TV의 생중계화면을 통해 직접 경청하면서 받아안은 충격은 실로 형언하기 어려웠다.

그중에서도 기념식수를 하실 때 울려퍼졌던 **김정은**위원장님의 저력있는 음성은 참으로 천만근의 무게를 안고있었다.

…한몸이 그대로 밑거름이 되고 소중한 이 뿌리를 덮어주는 흙이 되려는 마음, 비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되려는 마음가짐으로 이 나무와 함께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훌륭히 가꾸어나가자.

한몸이 그대로 북남관계개선의 토양에 활력을 부어주는 자양분이 되게 하시려는 심정이 얼마나 강렬하시였으면, 조국강산에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웃음꽃바다를 펼쳐놓으시려는 결심이 얼마나 드팀없으시였으면 이처럼 민족애가 높뛰는 불같은 말씀을 하시였으랴.

나라의 분렬이 지속될수록 겨레가 당하는 피해와 재난은 심해지고 전쟁위험은 커지게 될것이라는 생각으로 가슴을 불태우시는분, 하여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할 일념안고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는것을 자신의 제일사명으로, 중임으로 여기시는 **김정은**위원장님이시다.

언제인가 **김정은**위원장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나의 사상감정을 소박한 시구로 표현한다면 《흙이 되여 뿌리 덮어주리라》이다, 나는 《흙이 되여 뿌리 덮어주리라》는 구절이 들어있는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마디마디 사색과 실천의 모든 지향점을 겨레를 위한 일에 두시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 장을 열어놓으실 구상을 하신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간직하셨던 그분의 웅지였음을 다시금 새겨안게 하는 뜻깊은 이야기였다.

실로 위대한 애국애족의 세계를 지니신분이시기에 온 세상을 커다란 감격과 열광, 환호와 열광으로 들끓게 한 판문점의 충격을 안아오실수 있었던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과감함은 배가해지는 법이다.

역풍을 뚫고 미래를 앞당기시며

평화와 번영에로 향한 새로운 려정에는 결코 탄탄대로만 있은것이 아니였다.

지나온 한해를 되새기며 강렬한 충동을 느낀것은 그분께서 북남선언들의 마련만이 아니라 그 리행을 위한 력사의 전진을 직접 책임지고 견인해나가시였다는것이다.

력사의 그날 판문점 남측지역의 도보다리에서의 《산책대화》를 두고 당시 이남언론들과 외신들은 《수많은 상상과 이야기를 만들어낸 가장 주목되는 명장면》, 《굵직한 성과물들을 낳은 천금의 산책》이라고 평하였다.

바로 그날의 그 짧은 산책에서조차 민족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이 가로놓여도 민족자주의 힘으로 북남관계의 새로운 력사를 보란듯이 써나가시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의지가 뜨겁게 끓어넘치고 있었음을 나는 그후 전광석화와도 같이 펼쳐진 파격적인 현실들에서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김정은위원장님께서는 판문점에서의 력사의 그날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여 남측지역을 향해 성큼성큼 내디디셨던 **김정은**위원장님의 거보에서, 남측 《평화의 집》방명록에 거침없이 단숨에 써나가신 일필휘지의 활달한 친필에서, 민족공동의 강령인 판문점선언을 세상이 보란듯이 탄생시킨 과감하신 그 모습에서 나는 위인의 심장에서 끓고있는 민족애의 무한대한 열도를 가슴후더웁게 느꼈다.

불신과 대결의 랭기가 서리였던 동토대가 화해의 봄날을 맞아 마침내 녹아내리고 평화번영의 《수목》들이 무성하게 뿌리를 내리였다.

4.27선언이 발표된 후 평양을 방문하여 력사의 현장 판문점을 돌아본 한 동포지인은 나에게 이렇게 토로했다.

《판문각의 로대에 서니 위험천만한 곳에 와있다는 생각은 가뭇 잊혀지고 평온함과 함께 후더움이 온몸에 스며들었다. 판문점에 뿌리내린 한그루 푸른 소나무가 민족의 평화번영을 속삭여주는것만 같았고 **김정은**위원장님이 개척해가신 그 길을 마음속으로 따라걸을수록 통 큰 결단으로만 설명할수 없는 참으로 뜨거운 동포애가 비껴있음을 실감하였다.》

어찌 그만이 터친 격정의 웨침이라고 하랴.

민족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삼천리강토를 평화의 터전, 번영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가시는 절세위인께 매혹된 우리 겨레의 심장의 환호이고 열화같은 숭배심의 폭발인것이다.

진정 **김정은**위원장님의 열렬한 민족애가 있어 8천만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해온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개척될수 있은것이다.

력사적인 만남 전과정을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이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북남선언의 리행에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라는 사명감을 심어주는 과정으로 일관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날로 개선되는 북남관계에 당황망조한 외세는 《속도조절론》을 제창하였는가 하면 북남간 협의상황을 감시, 간섭하기 위한 《한미실무팀》까지 만들어 북남관계를 각방으로 방해해나섰다. 그것도 모자라 《련합방위태세》의 간판밑에 이남군부와 야합하여 북을 겨냥한 무력전개, 전쟁훈련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더우기 이남의 보수세력들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지와 찬동속에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들이 이루어지고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리정표인 판문점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자 악랄하게 모독중상해나섰다.

조선반도에 평화를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이를 거세하려는 반통일, 반평화세력의 준동이 우심해질수 있을것이라는것을 미리 내다보신 **김정은**위원장님, 외풍과 역풍에 구애됨이 없이 북과 남이 주인이 되여 4.27선언을 일관하게 리행해나가는것을 중차대한 과제로 제기하신 그분의 선견지명에 진정 감복을 금할수 없었다. 더우기 그 밑바탕에 가장 열렬한 민족애, 동포애가 놓여있음을 알게 되였을 때 깊이 머리숙여짐을 금할수 없었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되려는 마음》, 정말이지 그날의 마음가짐, 그날의 맹약을 지켜 **김정은**위원장님께서는 8천만겨레의 지향과 요구대로 북남관계가 발전할수 있도록 로심초사하시였다.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진두에서 열어나가시는 **김정은**위원장님의 대용단에 의해 마련되였던 제4차 북남수뇌상봉, 이 극적인 《번개만남》의 핵심의제 역시 판문점선언의 리행문제였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해 9월 평양을 방문한 남측《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마련한 오늘의 이 모든 성과들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선 북남관계를 계속 탈선없이 곧바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는 민족앞에 지닌 사명과 기대를 잊지 않고 힘껏 노력하여 우리 겨레에게 하루빨리 더 좋은 결실을 안겨주시려는 깊은 의도가 담겨져있다고 본다.

김정은위원장님의 이렇듯 크나큰 로고가 있어 예전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었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한해에 세차례나 진행될수 있었고 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강령이 탄생할수 있은것이다.

하기에 언제인가 이남에서 진행된 통일간담회에서 유럽의 한 동포는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4.27선언의 기둥, 핵이라고 할수 있는 최우선항목에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한것과 함께 북과 남이 선언을 철저히 리행해나가는것을 명문화하도록 하신 점, 판문점선언과 관련한 공동발표를 하시면서 력사적책무에 무게를 두신 점, 만찬장의 답례연설에서 서로의 마음을 합치고 힘을 모으면 그 어떤 도전과도 싸워 이길수 있을것이라는것을 언명하신 점 등을 미루어볼 때 북남선언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위인이 아니시고는 그런 지중한 가르치심을 하실수 없는것이다.》

지극히 옳은 주장이라고 본다.

실로 절세위인의 그 애국애족의 뜻이 겨레의 가슴마다에 통일애국의 넋으로 심어져 북에 살든 남에 살든 해외에 살든 누구나 뜻과 마음을 합쳐 북남선언리행에 특색있게 기여하려는 맹세와 각오가 불타오를수 있게 되였다.

민족화해와 단합의 훈풍으로 후더웠던 나날들에 높이 울려퍼졌던 겨레의 확신에 찬 목소리들이 지금도 귀전에 쟁쟁히 메아리쳐온다.

새시대의 선두에 민족의 맏아들이며 기둥인 우리 로동자들이 기관차가 되여 판문점선언리행을 힘있게 견인해나가겠다고 터치던 북남로동자들의 함성, 백두산에서 한나산, 독도까지 조국도 하나, 민족도 하나라는 진리가 담겨진 열연과 합창으로 조국통일위업수행에 보탬을 하자고 다짐하던 북남예술인들, 서로의 마음과 힘을 합쳐 더 값진 금메달로 민족의 슬기를 자랑스럽게 떨치자고 토로하던 북남체육인들…

참으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파격의 련속으로 단 한해동안에 북남관계의 대전환이라는 미증유의 사변들이 이 땅우에 펼쳐질수 있은것은 열렬한 민족애에 바탕한 성스러운 책임감으로 북남선언들의 철저한 리행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오신 **김정은**위원장님의 비범특출한 령도력이 있었기때문이다.

향도의 빛발따라 통일강국에로

평화번영의 첫걸음을 보다 줄기차게 이어나가시려는 **김정은**위원장님의 드팀없는 신념은 그분의 신년연설에서 더욱 뜨겁게 피력되였다.

북남사이의 군사적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방략을 내놓으신것을 보아도 삼천리강토에 평화가 굳건히 자리잡게 하시려는 억척의 신조가 빛발치고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최상의 대책을 세워주신것을 보아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반드시 열어나가실 굳센 각오가 뜨겁게 미쳐온다.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갈데 대한 고귀한 가르치심에는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바라는 겨레의 력사적숙원을 하루빨리 풀어주시려는 위인의 철석의 의지가 비껴있다.

자신께서 개척해가는 길이 온 겨레를 평화로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성스러운 길임을 확신하고 계시기에 **김정은**위원장님께서는 오늘도 평화번영에로 향한 전진의 보폭을 더 힘차게 내짚고계신다.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김정은**위원장님께서는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것은 자신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고 천명하시였다.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숭엄히 새기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진지하고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갈것이라고 하신 그분의 시정연설은 력사의 그날 사시장철 푸른 소나무의 강의함만큼이나 강의한 정신으로 우리 함께 앞날을 개척해나가자고 하시던 말씀의 참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였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무한한 헌신, 강의한 통일의지를 지니신분, 조국통일위업의 선구자가 되시여 겨레의 맨 앞장에서 광명한 미래를 열어나가시는 민족의 어버이를 우러르면서 8천만겨레는 그분께서 이끄시는 민족자주의 길을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해나간다면 북남관계발전과 평화와 번영, 통일도 반드시 성취할수 있다는것을 온 페부로 절감하고있다. 이것이 지난 1년을 통해 우리 민족이 새긴 불멸의 진리이다.

조선반도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평화와 통일로 향한 세찬 흐름을 가로막아보려는 내외반통일, 반평화세력의 준동은 의연 우심해지고있다.

하지만 민족의 숙원을 실현하시려 결연히 나서신 절세의 위인께서 계시여 민족의 전도와 미래는 양양하다.

얼마전 《**김정은**국무위원장 연구모임》결성을 선포한 자리에서 남조선대학생진보련합의 한 대학생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은 **김정은**위원장님에 대해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인식하고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그분의 략력과 주요활동, 말씀집 등을 깊이 연구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할것이며 대학생토론대회, 론문대회 등을 통해 위인의 고매한 풍모와 위인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갈 립장을 표명하였다.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께로 쏠리는 이남민심, 평양으로 흐르는 흠모열풍이 막을수 없는 대세로 되고있는것은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사상과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북남관계발전을 추동해나가시는 그이의 비범특출한 령도력에 매혹되여 무궁토록 그이 한분만을 따르려는 겨레의 드팀없는 신념과 맹세의 분출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겨레의 드팀없는 이 신념, 이 지향을 가슴에 안고 내 비록 해외에 살지만 절세위인의 통일령도를 받들어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진군에 애국의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다 바쳐나갈것이다.

재미동포 리진천
(인터네트홈페지《우리 민족끼리》에서 전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우리 민족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은 말을 하며 한강토에서 살아왔다. 그 어떤 힘도 유구한 력사를 통해 형성발전된 단일한 조선민족을 갈라놓을수 없으며 우리 겨레의 민족성을 말살할수 없다.

지난 세기 이룩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항일대전에 총궐기해 안아온 민족사적사변이였다.

주체25(1936)년 5월 5일에 창립된 조국광복회와 같은 민족통일전선체는 바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였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그 세월 전민족을 일치단결시켜 반일항전에 총궐기시키는것을 조국해방성취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문제로 보시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능과 지혜를 바치며 2 000만 민중이 한데 뭉쳐 행동으로 반일조국해방전선에 참가한다면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라고 확신하신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 현명한 령도에 의해 조국광복회가 창립되였다.

범민족적인 반일통일전선조직체가 결성됨으로써 온 민족은 일치단결하여 수령님의 령도따라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었다.

조국해방위업실현의 나날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경륜을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또다시 외세에 의해 민족분렬의 위험이 짙어가던 그무렵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를 소집하시여 삼천리강토에 통일애국의 대하가 거세차게 흐르게 하시였다. 민족의 통일대강으로 빛을 뿌리는 조국통일3대헌장은 나라의 분렬을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며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앞당겨오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 정력적인 령도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그이의 친필비를 건립하도록 하시였고 1996년 11월에는 판문점을 찾으시여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실 굳은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여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식화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여 민족단합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히시였다.

애국애족의 대용단과 의지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크나큰 업적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함성이 온 삼천리를 진감하던 그 나날 열려진 하늘길, 땅길, 바다길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민족의 래왕과 공조의 대하가 도도히 굽이쳤다. 북남사이에 계층별 통일대회들과 토론회, 민족통일대축전 등이 련이어 진행되여 삼천리가 통일의 환희로 설레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뜨거운 동포애로 평양을 찾아온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을 만나주시고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민족대단결과 자주통일의 리념과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드팀없는 결심이고 의지이다.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이고 유훈이라고 하시면서 온 민족이 단합하여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도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여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현명한 투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신년사에서 밝히신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은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하던 조선반도에 화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과 남을 관계개선의 길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고무적기치로 되였다.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조치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흐르던 지난해 3월의 봄날에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고위급대표단을 비롯하여 규모가 큰 대표단들을 파견하여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그에 사의를 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피줄을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도와주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우리 민족의 기개와 위상을 내외에 과시하고 북과 남사이에 화해와 단합,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마련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하시였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자는것이 우리의 일관하고 원칙적인 립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뜨거운 민족애와 통이 큰 결단으로 판문점에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걸음에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과 숨결을 이어주시고 대결의 상징을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어주시였다.

불신과 대결만이 감돌던 이 땅에 화해와 단합의 봄기운을 안아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범한 결단과 확고부동한 자주통일의지에 의하여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 채택되고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질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판문점선언을 안아오신데 이어 또다시 제4차 북남수뇌회담을 마련하시고 온 겨레에게 판문점선언리행에 대한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시고 조국통일운동에 커다란 활력을 부어주시였다.

지난해 9월에는 평양에서 제5차 북남수뇌회담을 마련하시여 평화번영과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강령인 9월평양공동선언을 채택발표하도록 하시여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온 삼천리강토에 차넘치게 되였다.

평양에서 진행된 수뇌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온 겨레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그이의 무한한 헌신과 열정을 다시금 페부로 느낄수 있었다.

남조선과 각국의 언론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에 대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지도자》, 《조선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안아오는 위인》, 《2018년 세계정치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국제적지도자》, 《강단있고 배짱있는 지도자이며 훌륭한 위인》이시라는 감탄의 목소리가 쉬임없이 울려나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용기백배하여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진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이자고 하시였다.

조국통일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으로 민족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의지와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민족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본사기자 주일봉

판문점에 새겨진 뜻깊은 화폭

사람들은 1년전인 판문점수뇌상봉의 나날에 있었던 감동깊은 화폭을 잊지 못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를 둘로 가른 판문점 분리선을 한걸음에 넘어 남녘땅을 밟으시는 가슴후련하고 뭉클한 광경을.

그 력사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온 겨레가, 온 세계가 충격과 감동을 터뜨리였다.

남조선언론들과 외신들은 《**김정은**국무위원장이 한걸음에 분단선을 넘는 장면은 참으로 력사에 남을 화폭이다. 높다고만 생각했던 분단선을 이렇게 간단히 허물수 있다는것을 알게 해준 **김정은**국무위원장께 경의를 드린다.》, 《**김정은**국무위원장이 분단선을 넘는 장면을 보면서 통일도 이렇게 한걸음에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문점분단선을 넘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의 모습은 통일은 조선사람의 마음에 달렸다는것을 세계에 보여준 충격적인 계기로 되였다.》고 전하였다.

긴긴 세월 분렬과 대결, 적대의 상징으로 되여온 판문점에는 분리선이 있다.

그 분리선은 사람들에게 민족분렬의 가슴아픈 비극을 상기시켜주어왔다. 포성은 멎었으나 오랜 세월 끝나지 않은 전쟁을 실감케 해주군 하였다.

높이는 불과 한뽐도 되나마 나하지만 쉬이 넘을수 없는 《철의 장벽》이였다.

우리 겨레에게 쓰라린 아픔을 안겨주는 분리선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새 력사를 쓰시려 한걸음에 넘으신것이다.

그이의 발걸음은 갈라진 강토를 잇는것만이 아닌 겨레의 숨결을 잇는 성스러운 발걸음이였으며 대결의 상징이였던 판문점을 평화의 상징으로 새롭게 태여나게 한 력사적인 발걸음이였다.

거기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대와 민족앞에 스스로 걸머지신 력사적책임이 무겁게 실려있었으며 말로써가 아니라 대범하고 과감하며 용기있고 결단력있는 실천으로 진정한 평화의 길을 튼튼히 닦으시려는 굳센 의지가 어리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판문점에서 열린 북남수뇌상봉에서 분렬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민족적사명감과 의무를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고 하시면서 오늘 그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는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마음을 안고 왔다고 하시였다.

조선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과거를 덮고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평화번영과 통일의 미래에로 나아가는 벅찬 새시대의 흐름은 이렇듯 위인의 성스러운 발걸음에서 시작된것이다.

하기에 력사의 그날 남조선의 대통령도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판문점분리선을 넘으시는 순간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으로 되였다고 하면서 오늘과 같은 뜻깊은 만남을 이루어낸 **김정은**국무위원장의 큰 용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하였던것이다.

금단의 선, 분단의 벽을 순간에 허무시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민족의 앞길은 밝고 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김영림

시초

북남선언의 기치높이 평화번영의 한길로!

아, 4월 27일!

리철준

분렬된 땅에 살아
아픈 눈물 흘려보지 못했다면
알수 없으리라
4월 27일
이날이 우리 겨레에게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를

금단의 선 분단의 벽
한걸음에 허무신 우리 원수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새로운 력사적리정표를 마련해 주신 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자자구구 새겨볼수록
가슴을 치는 환희의 박동으로
격정의 환호성을 터친 날이여

4월 27일 이날은
불신과 대결의 얼음장이 부서지고
평화와 통일의 새 기운이 태동한 날
온 겨레의 마음이 모여
하나로 합쳐진 화해와 단합의 날이거니

정녕 이날이 있어
8천만겨레여!
우리 신심과 희망에 넘쳐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가슴벅찬 미래를 확신하지 않았던가

봄계절의 하루였건만
하나가 된 통일조국에서
온 겨레 화목하고 부강번영할
민족의 밝은 래일을 다 안아본
아, 력사의 4월 27일이여!

영원히 푸르러 설레이라

김송림

푸른 잎새 펼치고
뜻깊은 한돌기 년륜을 아로새긴
판문점의 소나무여
너 소중히 안아
어루쓸어보는 겨레의 마음
어이하여 그리도 설레는것이냐

말해다오 소나무여
대결과 적대의 상징이던 판문점에
평화와 번영의 뿌리내린 소나무여
어이하여 4월이 오면
네 모습 소중히 안아보는것이냐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맞아
환희로 설레이던 판문점
그날에 우리 원수님
새로운 려정의 출발점에서
온 겨레의 숙원담아 심으신 소나무
한몸이 그대로 밑거름되고
소중한 뿌리 덮어주는 흙이 되려는 마음
비바람 막아주는 바람막이되려는 마음
불같이 터놓으신 그 진정 어려
겨레의 마음에 소중한 소나무여

사시장철 푸른 소나무의 강의함만큼이나
강의한 정신으로 우리 함께
앞날을 개척해나가자 하신
그날의 그 말씀 자양분되여
지심깊이만이 아닌 겨레의 가슴에
더 깊이 뿌리내린 네가 아니더냐

진정 겨레를 위해
아낌이 없을 열과 정
진함이 없는 헌신과 분투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마음안고
새로운 력사의 첫 돌기를 새긴 소나무여

눈속에 묻혀도 푸름을 잃지 않는
너의 장한 그 기상 안고
가리라, 우리 겨레
절세위인께서 열어준
통일의 대통로따라
언제나 너처럼
억세고 변함없이!

4월의 하늘가에 비둘기 날은다

리송일

흰 나래를 힘차게 펴덕이며
4월의 하늘 날아예는 비둘기들
바라보는 이 마음에
뭉클 어려오는 판문점의 4월이여

푸른 창공 나래치는 평화의 새들
가슴젖게 그려주누나
일촉즉발의 전운 밀어버리며
새로운 려정의 신호총성 울리시던
력사의 그날 우리 원수님모습

대결의 서리발 비낀 땅에서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라고
뜻깊은 친필을 남기실 때
가슴후련히 가셔지던 분렬의 한이여
겨레의 앞길에 환희로이 비껴들던
평화번영의 찬란한 래일이여

삼천리에 밝은 하늘 펼치여주신
그 은공, 그 로고에 뜨거이 목메이며
김정은열광속에 울고웃던 우리 겨레
그날의 감격안고 비둘기도 날아예는가

환희롭게 맞이한 판문점의 4월은
지지리도 기나긴 분렬세월
대결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우리 겨레에게
날으는 저 비둘기마냥
평화와 번영의 나래 주었거니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고
평화번영의 밝은 미래 안아오실
우리 원수님의 불같은 의지는
분렬강토에 화해와 단합의 꽃 피워
9월평양공동선언을 련이어 안아왔어라

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
그것을 목숨처럼 지키라고
그것을 리행하지 못하면
저 푸른 하늘에 또다시 불구름 서린다고
오늘도 온몸으로 웨치며
4월의 하늘가에 비둘기 날은다

북남선언, 그 기치따라!

김윤식

심장으로 온넋으로
겨레는 들었노라
판문점선언! 그 구절구절마다에서
대결과 불신의 얼음장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
평화번영의 새봄이 이 땅에 오는 소리

장장 70여년 지맥도 피줄도 뭉청 동강낸
원한의 판문점분리선
가증스런 그 선은 애당초 없었던듯
한걸음에 성큼 넘으시던 우리 원수님

그이 아니시고야 그 누가
민족의 피타는 소원
겨레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 한몸에 안고
통일위한 새 력사 시작할수 있었고

그이 아닌 그 누가
전쟁의 불구름 밀려오던 이 땅에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으로
평화번영의 새시대
겨레앞에 펼쳐줄수 있었으랴

이 땅의 평화가 그리도 소중하시여
통일강국의 아침 그리도 념원하시여
우리 원수님 9월평양공동선언으로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리정표
겨레의 앞길에 환히 밝혀주시였거니

진실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겨레여, 조선민족이여!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그 기치 높이 추켜들고
민족앞에 지닌 책임을 다해나가자

아, 력사적인 북남선언은
우리 민족의 생명선이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그 리정표따라
겨레여 우리 함께 손잡고 폭풍치자 노도치자
통일의 그날까지 힘차게! 힘차게!

평화번영과 통일을 위한 리정표

북과 남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조선반도에서 력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뜻깊은 시기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채택하였다.

판문점선언에서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였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판문점선언은 우리 겨레에게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력사적인 선언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리정표이다.

랭전의 산물인 오랜 분렬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판문점선언에서 북과 남은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북남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리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에는 또한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여 수뇌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갈데 대한 문제, 쌍방당국자가 상주하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는 문제,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래왕과 접촉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판문점선언을 통하여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것을 확약하였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판문점선언에서 북과 남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하였으며 서해에 평화수역을 만들어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호상협력과 교류, 래왕과 접촉이 활성화되는데 따른 여러가지 군사적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에서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나갈데 대하여서도 엄숙히 확약하였다.

조선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계를 수립하는것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력사적과제이다.

하기에 북과 남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불가침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나가며 군사적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나가는 문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 등을 선언내용으로 밝히였다.

판문점선언이야말로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길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제시한 력사적인 선언이다.

온 겨레는 그 리행을 위한 과정에서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철저한 리행으로 평화와 번영의 더 밝은 미래를 앞당겨와야 할것이다.

장형범

북남선언들이 가리키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철저히 리행되여 조선반도의 평화적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여나가기를 절절히 바라고있으며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그러나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아보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도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속도조절》을 로골적으로 강박하면서 북남합의리행을 저들의 대조선제재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있으며 보수세력들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의의와 정당성을 깎아내리고 그 리행을 가로막아나서다 못해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발표이전시기로 되돌려보려고 안깐힘을 써대고있다.

최근 남조선군부가 대화상대인 공화국의 면전에서 미군과 함께 공화국을 겨냥한 도발적인 군사연습들을 벌려놓고있는것도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북과 남이 군사적긴장완화와 적대관계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확약한 군사분야합의에 대한 로골적인 위반행위이다.

평화와 화해협력의 소중한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기 위해 애써 노력할 대신 지난 한해동안 북과 남이 공동으로 이룩한 조선반도의 화해기류에 역행하는 행위는 지금 겨레의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있다.

공화국은 남조선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 확고부동한 결심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공화국의 립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실천적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외세와의 공조로 《중재자》, 《촉진자》행세를 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여야 한다.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민족성원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제도의 차이를 뛰여넘어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리행하는 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마땅하다.

그러자면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한다. 지나온 력사는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여있는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세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한다면 오히려 북남사이의 훌륭한 합의도 순조롭게 리행될수 없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북과 남이 힘들게 마련한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것이 평화와 통일의 의미있는 결실로 빛을 보게 하자면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근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북과 남은 우리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으로서 북남선언들을 리행해나가는데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북남선언들을 고수하고 리행해나가는데서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일에 신경을 쓰면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판문점선언발표이후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자주적인 결단과 과감한 실천으로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려는 립장에 서면 결코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통일의 희망으로 가득찬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이 있으며 우리 민족이 그토록 념원해온 통일의 꿈과 리상이 담겨져있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아무리 엄혹한 도전에 부닥쳐도 주저하지 말고 북남선언들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해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민족의 힘이 강해지고 통일조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실천하여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김광세

판문점선언발표 1돐을 기념하여

남조선의 각계가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이 판문점선언발표 1돐을 기념하여 다채로운 행사들을 벌리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최한 《4.27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대회》가 경기도 파주시 림진각에서 열리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 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1년간 남과 북은 소중한 결실들을 많이 거두었다.》,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많은 합의뿐만아니라 이 땅에서 전쟁은 없을것이라고,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사실상 종전을 선언한것과 다름없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상호행동으로 평화체제, 관계정상화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에 합의하고도 미국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채 북의 항복만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남북의 합의사항 역시 제대로 리행되지 않고있다.》, 《판문점선언 1조 1항 〈민족자주의 원칙〉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정부〉가 담대하게 남북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로총도 림진각에서 《4.27로동자 자주평화대회》를 열고 《로동자가 가장 실천적으로 남북공동선언리행투쟁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연설자들은 《판문점선언리행이 곧 평화번영, 통일이며 판문점선언 1주년인 오늘은 선언리행을 가로막는 모든 행태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날》이라고 하면서 《판문점선언리행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의 책동을 로동자민중의 힘으로 력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고 민족대단결의 강력한 힘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새시대로 달려나가자.》고 호소하였다.

한편 서울에서는 《판문점선언 1주년기념 대학생단체 기자회견》이 열리였다.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경남겨레하나운동본부 등 경상남도지역 통일운동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판문점선언을 리행해야 한다.》는 립장을 밝히였다.

본사기자

통일교실

민족자주의 원칙

통일문제해결에서 철두철미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민족자주는 일찌기 북과 남이 합의한 조국통일3대원칙의 첫 조항에 밝혀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된 문제이다.

조국통일문제에서 자주의 원칙을 지킨다는것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조선사람들끼리 이 문제를 다룬다는것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양보할수 없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다. 이 원칙을 부정하면서 대화와 통일을 론하는것자체가 민족에 대한 우롱으로 되며 용납될수 없는것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선반도에 모처럼 마련된 평화적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그날이 하루빨리 앞당겨지기를 학수고대하고있다. 그러나 이와 배치되게 내외반통일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나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발표이전시기로 되돌려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온 겨레앞에 민족의 평화번영과 통일문제해결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갈것을 보다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면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민족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식이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적힘이라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력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뼈아프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것은 예속의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렬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여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민족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외세에 구걸하는것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이며 반통일행위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숭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숭배하고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믿어야 하며 통일론의를 해도 자기 민족과 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시련이 겹쌓인다 해도 통일문제해결에서 언제나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유금주

민족앞에 지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평화번영과 통일의 새 아침이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 겨레의 이 열망을 실현해나가자면 남조선당국이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가야 한다.

최근시기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가 아니면 파국으로 치닫던 과거에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된것은 이 구실, 저 구실을 내대며 북남선언리행을 회피한 남조선당국의 온당치 못한 태도에 근본원인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내외가 공인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푼수없이 그 무슨 《중재자》, 《촉진자》행세를 하면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여러 언론들과 전문가들속에서 울려나오는 《〈정부〉가 남북수뇌회담을 더이상 북미협상의 종속물로 만들지 말고 남북관계에만 지향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북과 남이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지속시키고 그것이 평화와 통일의 의미있는 결실로 빛을 보게 하자면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근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속도조절》을 로골적으로 강박하고 북남합의리행을 저들의 대조선제재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을 바라지 않는 무례한 간섭책동이다. 현실은 북남선언리행을 가로막는 외세의 책동을 짓부셔버리는것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사대적근성과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것을 북남관계에 복종시킬데 대한 공화국의 요구를 외면하고 계속 부질없는 《중재자》역할에 매달리려 한다면 자기들의 처지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뿐이다.

남조선군부는 외세와 야합하여 벌려놓는 합동군사연습들도 그만두어야 한다.

합동군사연습의 간판이나 바꾸고 규모나 축소하는 식으로 여론을 기만하면서 은폐된 적대행위에 계속 매달리는것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에 대한 공공연한 배신행위이다. 그러한 군사적도발이 북남사이의 신뢰를 허물고 사태를 험악한 지경으로 몰아갈수 있다는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한 일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북남관계를 과거의 대결국면으로 되돌려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북남선언리행을 계속 가로막아나서는 미국과 남조선보수패거리들의 준동을 짓부셔버리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자면 남조선당국이 민족앞에 한 약속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지켜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남녘의 열의

남조선에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발표 1돐을 계기로 반미자주통일운동이 활발히 벌어졌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진보련대, 민주로총, 《전국농민회총련맹》, 청년련대를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은 이날을 맞으며 경기도와 남조선강원도, 서울, 부산, 대전 등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대회들을 성대히 조직하고 북남선언고수리행과 반미자주통일을 주장하며 기세를 올리였다. 기념대회장들에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자!》, 《대북제재를 해제하라!》, 《미국은 빠져라!》 등의 구호들이 게시되였다. 대회들에서는 판문점선언의 정당성을 론증하면서 선언리행을 방해하는 미국과 남조선보수패당을 규탄하고 선언고수투쟁을 적극 벌려나갈 의지를 담은 호소문과 결의문들이 채택발표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한〉반도평화와 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가자.》, 《〈정부〉는 어설픈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면서 미국의 눈치를 볼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립장에 바로 서라.》,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를 하루빨리 재개하자.》, 《〈정부〉는 앞에서는 남북대화를 주장하고 뒤에서는 대북전쟁훈련에 도장을 찍는 이률배반적행위로 남북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더는 하지 말고 외세의존정책과 단호히 결별하라.》, 《선언리행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의 책동을 민중의 힘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리자.》고 호소하였다.

특히 단체들은 《4.27—9.19북남선언리행운동기간》을 설정하고 지금부터 선언고수리행을 위한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지역적으로 힘있게 전개해나가며 북남련대활동을 더욱 적극화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은 력사적인 시정연설에 제시된 조국통일과업이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북남선언들을 고수하고 리행하려는것이 남녘의 민심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민족의 운명과 전도, 나라의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한 리정표로 틀어쥐고 자주적관점에 확고히 서서 투쟁할 때 비로소 북남선언들이 의미있는 결실을 볼수 있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지금 우리 겨레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철저히 리행되여 조선반도의 평화적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여나가기를 절절히 바라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강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끈질긴 간섭책동,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당국의 외세의존정책으로 북남합의리행이 좌절되고 정세가 악화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속도조절》을 로골적으로 강박하고있으며 북남합의리행을 저들의 대조선제재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반통일적인 극우보수패당은 화해와 평화의 기류에 도전하면서 과거의 대결시대를 되살려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축소》, 《명칭변경》의 외피를 쓰고 다시 강행하면서 정세를 긴장시키는 남조선군부의 호전적책동도 문제이다.

민족의 평화번영과 통일을 바라는 북과 남의 온 겨레는 이러한 대결전쟁소동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소원하는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기 위해서는 철두철미 북남선언의 기치밑에 민족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

온 겨레는 그 어떤 난관과 장애도 과감히 뚫고 북남선언들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평화번영과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할것이다.

강미선

극히 위험한 도발행위

최근 남조선강점 미군이 경기도 평택기지에서 고고도요격미싸일 《싸드》의 전개훈련을 벌리였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정찰기 《RC—135》, 조기경보통제기 《피스 아이》 등 각종 정찰자산을 동원하여 공화국의 지역에 대한 정탐비행을 강화하고있는 가운데 남조선강점 미군이 평택미군기지에서 공화국을 겨냥한 《싸드》전개훈련을 강행한것은 스쳐보낼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어렵게 마련된 조선반도의 평화분위기를 흐리는 무모한 군사적도발이고 공화국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공갈이 아닐수 없다.

《싸드》로 말하면 미국이 그 무슨 《북조선미싸일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끌어들인 선제타격수단으로서 이번 전개훈련 역시 주변나라들까지 겨냥한 도발행위이다.

공화국의 주동적인 조치와 평화애호적노력으로 마련된 조선반도평화기류에 역행하는 《싸드》전개훈련은 미국이야말로 평화의 파괴자라는것을 다시금 보여주는것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비밀리에 《싸드》전개훈련을 벌리고는 도적이 제발저린 격으로 내외의 반발이 두려워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고있지만 그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정체를 가리울수는 없다.

미국이 그만큼 공화국을 상대해보고도 아직까지 힘으로 위협하여 불순한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은 없을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더 이상 두어둘 구실이 없는 《싸드》를 남조선에서 끌어내가며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펼쳐나가자고 확약한대로 공화국을 반대하는 모든 적대시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도 모처럼 마련된 조선반도평화흐름에 역행하는 미국의 무모한 적대행위에 추종하다가는 좋지 못한 결과밖에 차례질것이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한일혁

대세의 흐름에서 밀려난자들의 행악질

최근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온갖 모략과 비난소동으로 현 당국에 대한 민심의 기대를 허물어보려고 악을 써대고있다.

그러나 일은 《자유한국당》의 뜻대로 되지 않고있다. 오히려 차례진것은 사회적랭대와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만이 따돌림을 당하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고있다.

이에 당황한 반역당은 지금 현 집권당국을 붕괴시키기 위한 전면공세에 매여달리고있다. 당대표 황교안과 원내대표 라경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당안에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문재인〈정권〉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문재인〈정권〉의 사법장악저지 및 사법부독립수호특별위원회》 등 별의별 《특별기구》들을 다 내오고 현 당국의 대내외정책을 악랄하게 헐뜯어대고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당내에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문재인〈정권〉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잡다한 기구들을 설치한다, 《국회》에서 뛰쳐나가 장외시위놀음을 벌린다 하면서 악을 써대는것은 보수세력을 집결하여 권력을 탈취해보려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그런다고 일이 제 뜻대로 되겠는가.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5.18망언, 《세월》호망발로 민심의 더 큰 규탄을 받고있는데다 여야4당이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을 신속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정치무대에서 개밥의 도토리신세가 되였다. 남조선 각계에서 《〈자유한국당〉이 패싱당했다.》는 사회적조소가 터져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벌려놓은 당국에 대한 전면공세는 대세의 흐름에서 밀려난자들의 행악질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역적당이야말로 제명을 다 산 송장무리들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낼뿐이다.

황교안을 비롯한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민심을 기만해보려고 아무리 오그랑수를 써도 《박근혜공범당》, 《탄핵정권부역자집단》으로서의 죄악과 추악상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적폐세력으로서 반역당이 살아보겠다고 발악하면 할수록 남녘민심의 더 큰 조소와 환멸만을 자아내게 할뿐이다.

신성일

남조선단체들

역적당해체투쟁에 떨쳐나서자고 호소

4월 28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국민주권련대 부산지역본부를 비롯한 단체들이 판문점선언 1돐을 맞으며 부산에서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이 담겨진 판문점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전쟁연습이 벌어지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남북교류협력사업도 미국과 그 앞잡이 《자유한국당》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고 그들은 분노를 터뜨렸다.

그들은 한줌도 안되는 《자유한국당》이 평화통일과 공동번영을 지지하는 온 겨레를 《빨갱이》라고 줴치고있지만 오히려 그자들만 없어지면 온 세상이 밝아지고 통일을 이룰수 있다고 말하였다.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역적당해체투쟁에 모두가 떨쳐나서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화해와 평화를 반대하는 역적당의 구걸질

얼마전 《자유한국당》의 대표 황교안과 윤상현 등이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를 찾아갔다고 한다.

친미사대를 잔명부지의 동아줄로 여기는자들이니 별로 새삼스러운것은 아니지만 내뱉은 수작 하나하나가 참으로 역겹기 그지없다.

건들건들한 저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어쩌구저쩌구 아부아첨하며 개여올린것도 모자라 《한미동맹》이 《북과 대치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고 《북비핵화를 위해 대규모합동군사연습재개가 필요》하다고 애걸한것은 참으로 듣기 험한것들이였다.

지금이 어느때이기에 《북과 대치》를 떠들고 《대규모합동군사연습재개가 필요》하다고 너스레를 떠는가 하는것이다.

북남사이에 힘들게 마련한 화해분위기이다.

조선반도에 모처럼 찾아온 평화기류이다.

내외가 한결같이 지금의 상태가 지속되고 이를 더 발전시켜 조선반도의 통일과 공고한 평화에로 도약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발전에로 이어지기를 기원하고있다.

그런데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길을 닦는데 손발 한번 놀리기는 고사하고 북과 남이 손잡고 가는 려정에 걸음걸음, 사사건건 방해만 놓아온것도 모자라 외세에 달라붙어 과거의 대결과 전쟁위기를 되살려달라고 애원하고있으니 경악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다.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동족대결과 전쟁에로 줄달음쳐온 《자유한국당》의 전신들인 《한나라당》, 《새누리당》때문에 북남관계가 전쟁문어구까지 갔던것이 먼 옛날의 일이 아니다.

병아리는 암탉이 배워준대로 울어댄다고 역시 《자유한국당》의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의 유전인자는 절대로 달라질수 없는 모양이다.

미국이 깔아놓은 전쟁멍석우에서 대결의 미친 칼춤만 추어온 《자유한국당》족속들이여서 먹이를 위해 꼬리를 흔드는 개꼴로 상전의 동정만 구걸하는데 여념이 없고 앉으나서나, 자나깨나 동족과의 대결에만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것이다.

화해가 아니라 대결이 좋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필요하다고 보는 역적당이다.

저들의 사욕을 위해서라면 민족도 서슴없이 팔아먹는 보수패당의 흉심은 상전의 환심을 사서 재집권만 하면 그만이고 동족대결로 더러운 목숨을 연명해가자는것이다.

보수역적패당이 외세를 하내비처럼 여기며 대결망동을 벌리는것은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에로 굽이치는 대하의 흐름을 손바닥으로 막겠다는 격의 어리석은짓에 지나지 않는다.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단합을 지향하는 남조선민심과 시대의 추이에 어긋나는 망동, 망언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민족의 우환거리이며 재앙단지이다.

저들의 더러운 명줄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면 외세와 야합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로막고 대결의 먹구름을 몰아오는것도 서슴지 않는 보수역적패당은 한시바삐 청산해야 마땅하다.

최진옥

반역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

최근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열기가 급격히 고조되고있다고 한다.

지난 4월 22일 한 청원자가 국민청원게시판에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을 철저히 조사하여 정당해산청구를 해달라.》,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해산해주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글을 올린것을 계기로 시작된 《자유한국당》해산청원은 5월 2일 현재 그 참가자수가 무려 17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사회 각계의 비상한 주목을 끌고있다.

이것은 대세의 흐름과 민심에 도전하는 《자유한국당》것들의 반역적망동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쌓이고 쌓인 분노와 증오심의 폭발인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역도에 대한 로골적인 비호, 5.18망언과 《세월》호참사망발, 《국회》에서의 광기어린 란동 등 만사람의 격분을 자아내는 《자유한국당》것들의 망동은 실로 끝이 없다.

이러한 《자유한국당》것들의 행태는 중형을 선고받고도 남을 특대형흉악범죄로 된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주요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지정》을 반대하여 《국회》를 점거하고 대규모시위란동을 부리는 등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추태를 부린것만 해도 그렇다.

이런 천하의 쓰레기들, 역적배들이 감히 국민이라는 이름을 더러운 입에 올리며 남조선의 민심을 우롱하고 초불투쟁의 전취물인 민주개혁《정권》을 뒤집어엎으려고 발광하고있으니 어찌 남녘민심이 격분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지나온 력사는 민심을 거역한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한두번만 보여주지 않았다.

《자유한국당》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운동을 박근혜탄핵을 위한 초불투쟁과 같은 격렬한 대중투쟁으로 이어나감으로써 격노한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더욱 똑똑히 보여주어야 역적패당을 짓눌러버릴수 있게 된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도 더이상 민심의 《보호》만을 받는 《정권》이 아니라 민심을 대변하고 그에 부응하는 《정권》이 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세인의 조소거리가 되다

최근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박근혜역도를 감옥에서 꺼내보려고 서푼짜리 요술을 피우다가 세인의 조소거리가 되였다.

알려진것처럼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고용변호사를 내세워 《박근혜가 수감된 이후 심한 통증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있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수 있다.》고 아부재기를 치면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들도 구속된지 2년만에 석방되였다.》, 《현 〈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해 석방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비린청을 돋구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역도년에 대한 건강검진을 진행한 후 처음 수감될 때보다 오히려 건강상태가 훨씬 좋아졌다, 밥 한공기를 순간에 비우고 허리아픔에 대해 한번도 고통을 호소한적이 없다고 하면서 박근혜역도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각계층은 당연한 결정이다, 박근혜의 형집행정지신청자체가 죽은 송장을 살려보려는 어리석은짓이였다, 희대의 범죄자가 특혜를 누리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결정을 지지하고있다.

그런데 제 처지도 모르고 박근혜의 형집행정지신청놀음을 벌려놓았다가 코만 떼운 《자유한국당》것들은 《당장 석방해야 한다.》고 악다구니질을 해대고있다.

참으로 분격할 일이 아닐수 없다.

지은죄를 놓고볼 때 릉지처참해도 씨원치 않은 산송장의 병증세까지 날조하며 석방시켜달라고 떼를 쓴 자체가 정의로운 초불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이다. 특급범죄자에 대한 《동정》여론을 류포시키며 형집행정지를 떠들어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야말로 역도년과 한배속인 공범자집단, 적폐무리이다.

《자유한국당》것들이 《박근혜석방》을 떠들고있는데는 《보수대통합》의 구심점을 만들어 친박잔당들을 하나라도 더 긁어모아 보수집결과 재집권의 개꿈을 실현해보려는 흉심이 깔려있다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력사의 심판을 받고 지리멸렬되였던 보수패당이 다시 머리를 쳐들고 이전에는 감히 엄두도 못내던 《탄핵무효》와 《박근혜무죄석방》까지 공공연히 떠들어대는것은 민심을 우습게 여기고있기때문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오물더미의 독버섯처럼 되살아나 파쑈독재와 동족대결의 암울한 과거를 되살리려고 발악하는 역적패당을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각성을 가지고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다.

오영철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 제34차 전국과학기술축전 진행 —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제34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이 진행되였다.

《자력갱생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전에는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각 도(직할시)의 500여개 단위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전민총돌격전, 총결사전을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는 때에 열린것으로 하여 이번 과학기술축전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전력, 금속, 화학, 기계, 석탄, 철도운수, 경공업, 농업, 정보기술분과 등으로 나뉘여 진행된 축전에는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자립적경제구조를 완비하는데서 이룩한 수많은 과학기술성과들이 전시되였다.

특히 경제강국건설의 전초선인 전력공업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들은 참관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모았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내놓은 전력생산공정에 대한 분산형조종체계, 보이라물관세척 및 부식방지제의 국산화를 실현한 성과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전시한 백색연재에 의한 단열벽돌생산공정을 확립한 성과, 함경남도송배전부에서 출품한 GIS에 의한 도시전력망개건현대화방안작성 및 실현과 관련된 성과들은 전력생산의 주체화실현에서 큰 의의가 있는것으로 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금속공업의 주체화에서 이룩된 훌륭한 성과들도 적지 않았다. 산소열법용광로에서 무연탄에 의한 선철생산 성공, 20t, 130t 산소전로에서 산소열법용광로쇠물에 의한 강철생산 성공, 류동층가스발생로생산공정 확립, 석탄가스화에 의한 열간압연강판생산 실현, 130t남비정련로생산공정 확립 등 과학기술성과들은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를 물거품으로 만들며 주체철생산으로 경제강국건설을 굳건히 담보해가고있는 금속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떠올리게 하였다.

자력자강의 고향집의 영예를 안고 국가과학원에서는 중유를 쓰지 않고 무연탄과 산소로 보이라의 착화 및 연소안정화의 실현, 공업용6자유도관절로보트, CNC빛섬유레이자절단기, 토양미생물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있게 하는 다기능성복합미생물비료 《풍록》, 물고기의 병균저항성과 사름률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는 천연면역강화제를 비롯한 과학기술성과들을 가지고 이번 축전에 참가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구호밑에 과학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이룩한 량자통신기술, 심층신경망에 의한 인공지능기술, 나노사기분리막, 희토류영구자석, 나노전기석분말제조 등 첨단기술성과들과 이동통신기지국안테나, 안과수술용현미경을 비롯한 많은 첨단기술제품들을 축전에 내놓았다.

그런가 하면 종자혁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국내실정에 맞게 새롭게 육종한 벼, 강냉이, 밀, 보리, 콩, 감자 등 농작물종자들과 집짐승 및 꿀벌품종들, 주요과일품종들도 있었다.

이밖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칠감용 나노복합항균제를 자체로 개발한 성과, 금별제약공장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구의 주체화를 실현한 성과, 경성도자기련합기업소에서 자기 지방에 흔한 원료를 리용하여 내벽타일을 생산한 성과, 황해남도 신천군농기계사업소에서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전력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는 성과, 세포고려약공장에서 원료,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한 성과를 비롯하여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가는 과정에 이룩된 훌륭한 성과들도 많았다.

제34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과학기술적으로 힘있게 떠밀어주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김 철

《제재와 봉쇄도 조선인민의 앞길을 막지 못한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이룩하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공화국의 드높은 기상과 발전잠재력에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대조선제재처럼 포악무도한 제재를 세계는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있다. 놀라운것은 그처럼 가혹한 제재속에서도 조선이 앞으로 전진하고있는것이다. 나를 크게 감동시킨것은 훌륭히 변모된 평양의 모습이였다.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다양한 형식의 건축물들이 새로 일떠섰으며 거리는 놀랄만큼 깨끗하고 도시미화도 훌륭하였다. 이 모든것은 조선인민이 땀흘려 마련한것들이다. 조선의 현실은 그 어떤 제재도 결코 이 나라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던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대표단 단장 가리브 네와즈는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은 자력갱생으로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지금 적지 않은 나라들이 남의 도움에 의한 경제발전을 기대하고있는데 자기의것이 없는 경제는 한갖 허울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서 자력갱생으로 모든것을 창조해나가는 나라는 오직 사회주의조선밖에 없다. 그 어떤 제재와 봉쇄도 조선인민의 앞길을 절대로 막지 못한다. 조선이야말로 불패의 힘을 가진 위대한 나라, 전도가 양양한 강국이다.》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제재압살책동속에서도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휘황한 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조선, 그 위대한 힘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가 게재한 인터네트홈페지에서 찾아본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무엇이나 다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진리를 체득하였다. 이런 인민이 있기에 조선은 끊임없는 발전의 길을 걷고있다.

조선의 현실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것이 있다. 그것은 조선사람 그 누구를 만나 이야기하여도 모두가 첫마디부터 자기 령도자에 대한 흠모심을 토로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할 결의를 피력하는것이다. 서방사람들로서는 리해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허나 조선에 가보면 그 리유를 쉽게 알수 있다.》

옳은 말이다.

조선의 일심단결과 함께 자력갱생의 정신은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며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건설해나가는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힘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부 전자수감장치연구실은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많이 내놓는 실력있는 과학연구집단이다.

이곳 연구집단은 자랑찬 첨단연구성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김금철실장, 창의고안명수로 불리우는 안남철, 개발된 제품들을 현실에 도입하는데서 뛰여난 능력을 지닌 유성철을 비롯하여 거의 모두가 30대의 젊고 쟁쟁한 연구사들로 이루어져있다.

지난 시기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부 전자수감장치연구실에서 개발한 첨단수준의 측정 및 분석장치들을 비롯한 수십여가지의 과학연구성과들은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들에 도입되여 큰 은을 내고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이곳 연구집단이 주체화의 기치높이 피타는 사색을 기울이고 완강하게 실천하며 이룩해놓은것들이다.

이곳 연구집단은 측정 및 분석장치들에 대한 개발과제가 나서면 그것을 국내실정에 맞게 첨단수준에서 신속히 개발하는것을 목표로 삼고 연구사업에 모든 정열을 다 기울이고있다.

수자식폐하계를 연구개발하던 과정만 놓고보아도 이들의 불타는 열정과 자신만만한 배짱을 그대로 엿볼수 있다.

그 어떤 측정 및 분석장치라고 할 때 기본은 수감부이다.

연구집단은 이 장치개발을 위해 여느때같으면 몇달이 걸릴 방대한 연구자료들을 단 며칠사이에 탐독하였다.

이들은 거듭되는 실패에도 주저앉지 않고 수백차에 걸치는 실험을 통하여 수감막의 합리적인 재료조성을 새롭게 밝혀내고 수자식폐하계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가 이룩될 때마다 이들은 날마다 커가는 자기 힘에 대한 긍지를 페부로 느끼면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었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며 남이 한걸음 걸으면 열걸음, 백걸음을 달려나간다는 배짱으로 이들은 공업용수질분석기, 유해가스분석기 등 첨단수준의 분석 및 측정장치들을 련이어 개발하였다.

오늘도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부의 교원들과 연구사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며 첨단과학연구의 주로를 계속 힘차게 달리고있다.

본사기자 김영춘

첨단과학연구에 집체적지혜와 열정을 바쳐간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과일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어

각지의 농촌리들에서 집과 마을마다에 갖가지 과일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집집마다에 여러가지 과일나무를 심으면 봄에는 백화가 만발하고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지어주며 가을에는 갖가지 과일이 주렁져 좋은점이 한둘이 아니다.

태천군 은흥리에서는 추리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를 비롯한 과일나무들을 많이 심고있다.

리에서는 세대마다, 작업반마을마다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 과수원화를 실현할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해마다 1 000그루의 과일나무를 심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올해 봄철에도 마을주변과 세대들에 과일나무를 심어 갖가지 과일나무가 들어차게 하였다.

안변군 천삼리는 감나무가 많은 고장으로 소문이 났다. 리소재지는 물론 작업반마을들도 감나무로 뒤덮인듯 하다. 농장원세대마다 평균 10그루이상의 감나무가 있다.

리일군의 말에 의하면 어떤 집들에는 30그루이상의 감나무가 있는데 해마다 여러t씩 감을 따들이고있다고 한다.

이곳 농장에서는 과수작업반에서 5만그루의 감나무모를 생산하여 살림집의 앞뒤뜨락과 주변에 많은 감나무를 심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농장원들에게 감나무에 대한 비배관리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알려주어 감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함주군의 농촌리들에서는 집과 마을들을 과일나무숲으로 우거지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그 앞장에는 운동리사람들이 있다.

어느해 봄날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집집마다 살구나무를 많이 심어 살구꽃속에 묻혀있는 운동리를 지나시면서 못내 기쁘시여 이 마을을 《**살구동네**》라고 불러주시였다.

봄이면 온갖 과일꽃속에, 여름과 가을이면 향기그윽한 열매속에 묻혀 한폭의 그림과 같이 아름다운 살구동네.

운동리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드린 크나큰 자랑을 안고 살구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과일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있다.

이곳 리에는 살구나무뿐아니라 추리나무, 감나무 등 여러가지 과일나무가 집집마다 평균 15그루, 어느 한 세대에는 60여그루나 된다. 리적으로 집집마다에 심은 과일나무그루수는 수천그루에 달한다고 한다.

리에서는 세대마다 다층살림집인 경우에는 15그루, 농촌문화주택에는 30그루이상의 감나무를 심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적극 내밀고있다. 이들은 올해에만도 800그루의 살구나무를 기술적요구대로 심었다.

운동리사람들의 모범을 따라 온 군이 과일나무심기에 떨쳐나섰다. 수홍리에서는 자기 지방의 기후풍토에 맞는 과일나무를 심는 사업을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동봉리, 추상리를 비롯한 다른 리들에서도 어디에 가나 과일나무로 이채로운 풍경을 펼쳐놓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고있다.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는 제5작업반마을을 살구나무동네라고 부르고있다.

이곳 작업반마을에는 어디에나 살구나무가 많다. 집집마다 평균 5그루, 어떤 세대에는 15그루 그리고 작업반주변과 마을길들에도 살구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과일나무가 있어 마을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작업반장의 말에 의하면 어느 한 세대에서는 한해에 300kg의 살구를 따며 해마다 마을에서 딴 많은 살구를 원아들에게도 보내주고있다고 한다.

마을이 살구나무동네로 불리우기 시작한것은 오래전부터였다.

농촌살림집들에 살구나무를 많이 심어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함주군 운동리사람들처럼 온 마을을 무성한 과일나무숲으로 뒤덮이게 할 일념을 안고 이들은 마을주변과 집뜨락에 살구나무, 감나무를 비롯한 과일나무를 정성껏 심었다. 그 나날에 마을에는 10그루가 넘는 과일나무를 심은 세대가 계속 늘어났다.

한해두해 지나면서 과일나무들이 자라고자라 어느덧 마을은 살구나무동네로 불리우기 시작하였다.

이곳 살구나무동네사람들은 더 많은 과일나무를 심고 가꾸기 위해 애쓰고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도 추리나무, 살구나무를 많이 심어 추리동네, 살구동네로 불리우는 마을들이 적지 않다.

추리동네, 살구동네, 소박한 이름이여도 여기에는 열렬한 향토애를 지니고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꽃피워나가는 소중한 마음들이 깃들어있다.

뜨거운 향토애와 승벽심을 가지고 한그루의 과일나무라도 더 많이 심고 가꾸기 위한 노력속에 각지의 농촌마을들이 갖가지 과일나무숲속에 묻힌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되여가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제힘으로 흥하는 보람

자강도 초산군이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천지개벽되였다. 우리는 그에 대하여 전하기 위해 얼마전 이곳을 찾았다.

주체55(1966)년 9월 초산땅을 찾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군의 원료원천과 생산수단, 로력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지방산업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앞으로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군내인민들의 생활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몸소 험한 산골군을 여러차례 찾으시며 군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간직한 초산사람들은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기적과 혁신의 자랑찬 자욱을 새겨왔다.

초산땅을 찾은 우리는 먼저 군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초산청년3호발전소를 찾았다. 행복의 래일을 약속하듯 기운차게 돌아가는 발전기들, 콤퓨터화된 종합조종실…

우리는 군의 한 일군으로부터 발전소건설의 나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초산청년3호발전소건설문제가 상정되였을 때였다. 일부 사람들은 발전소건설을 한두해만이라도 뒤로 미루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1호발전소와 2호발전소를 군자체로 건설한것도 대단한데 발전소를 또 건설하자고 하니 아름차게 느껴졌던것이다. 이미 세운 전투목표도 방대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초산청년3호발전소건설을 대담하게 내밀었다. 발전소건설장은 말그대로 백열전을 이루었다. 청년들이 앞장에 서서 돌격대를 뭇고 물길굴을 열어나갔고 녀맹원들까지 떨쳐나섰다.

이들의 자력갱생의 정신력에 떠받들려 훌륭하게 일떠선 초산청년3호발전소는 자기 힘을 믿고 일어서면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새겨주었다.

어찌 발전소건설의 나날만이랴.

자체의 원료, 자체의 기술, 자체의 설비로 여러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는 초산포도술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안고있는 자랑도 컸다.

창호지공장에 들려보아도 자기 고장의 특산물생산을 위해 바쳐가는 이곳 종업원들의 애국심을 읽을수 있었다. 또한 제힘으로 학습장들과 도배종이를 생산해낸다는 종이공장 종업원들의 자부심도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몸소 다녀가신 가정용품 및 건재상점에 들어서니 군안의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된 100여가지 상품의 이름이 적힌 목록이 눈길을 끌었다.

그것을 보며 자체의 힘으로 군안의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는 일군들의 미더운 모습을 그려볼수 있었고 생산정상화의 동음높은 이곳 지방산업공장들의 실태를 잘 알수 있었다.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보람이 한껏 넘쳐나는 초산땅.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서 제힘으로 이루어놓은 생활이기에, 모두가 다같이 맛보는 기쁨이고 누리는 행복이기에 초산땅사람들은 아름다운 생활, 커가는 행복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있는것이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이것은 초산군 일군들과 인민들이 심장마다에 억척같이 쪼아박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자강도는 고난의 행군시기 자신에게 있어서 정든 고장이라고 하시며 찾고 또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심장마다에 새겨가며 초산사람들은 오늘도 이악하게 군살림살이를 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진혁

석탄탐사를 앞세워

탄소하나화학공업에서 기본원료로 되는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연료를 보장하자면 많은 량의 석탄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에서는 새로운 탄밭들을 확보하기 위한 탐사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고있다.

이곳 연구소에서는 김경철 석탄지질학연구실 실장과 리충일 지구물리학연구실 실장을 비롯한 석탄탐사부문의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로 탐사력량을 조직하였다.

그들은 현장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지하깊은 곳에 묻혀있는 석탄층들을 탐사하였다.

하여 여러 탄광들에서 새로운 탄밭을 깔고앉아 석탄생산을 보다 힘있게 내밀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우리와 만난 김경철 석탄지질학연구실 실장은 《석탄생산을 늘이자면 더 많은 탄밭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질학연구를 보다 심화시켜 석탄생산에 기여하겠다고 하였다.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의 성원들은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자립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강류성

우아하면서도 독특한 조선옷

세상에는 제나름의 아름다움과 황홀함을 자랑하는 옷들이 수없이 많지만 조선옷처럼 고상하면서도 아름다운 민족옷은 그 어디에도 없다.

조선옷의 형태는 독특하면서도 단순하지만 우아한 느낌을 주고있다.

예로부터 웃옷과 아래옷이 명확히 구분된 나뉜옷차림을 하여온 우리 선조들은 민족적감정에도 맞고 보기에도 우아한 옷형태를 창조하였다.

조선치마저고리만 놓고보아도 웃부분이 좁고 밑부분이 풍성한것으로 하여 안정되고 우아한 느낌을 준다.

저고리의 부분별 형태선들은 깃, 진동, 고름과 같이 직선들과 도련, 배래기와 같은 곡선들로 조화롭게 결합되여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직선으로 이루어진 형태선들은 옷을 차려입으면 곡선으로 변화되는 특징이 있다. 실례로 깃은 직선인데 저고리의 목부위를 따라 자연스러운 곡선을 이루다가 앞가슴에서 뾰족하게 모아진다. 또한 긴 직선인 활기와 고름, 치마선, 바지길이선 등은 유연한 곡선으로 변화되여 입은 사람의 어깨선과 몸매선을 따라 그리고 몸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나타난다.

일정한 품여유를 주고 발목에 대님을 매여 활동상의 편리를 주는 조선바지도 단정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조선녀성들의 몸매와 결합되여 하나의 완벽한 예술작품처럼 안겨오는 조선치마저고리는 그 차림이 아름다운 률동으로 이어진다.

조선치마는 가슴에서부터 수직으로 드리워진 주름선에 의하여 사람의 키를 보다 커보이게 할뿐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이미 있던 선들이 없어지고 다시 새로운 선들이 생기면서 부드러운 흐름이 반복되여 새로운 률동을 강조한다. 자연스럽게 퍼진 치마와 움직일 때마다 남실거리는 기슭선의 률동이야말로 조선옷에서만 볼수 있는 매우 인상적인 모습이다.

또한 꼬리치마는 치마허리에 주름이 잡힌 긴치마를 가슴까지 걸어올림으로써 허리선은 풍만하게, 발밑까지의 치마선은 점차 좁아지게 만들었는데 이때 나타나는 구불구불한 굵은 주름은 률동감을 더해주며 단순한 옷형태를 순간에 변화시킨다.

거기에 저고리고름은 치마륜곽의 곡선미에 직선미를 더해주어 조화로운 느낌을 준다.

조선옷의 형태는 이밖에도 색갈과 무늬, 옷감의 재질과 치레거리와 조화되여 전체적인 통일을 이루면서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한다.

우리 민족이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창조해온 우수한 민족옷유산들은 시대적 환경에 맞게 나날이 계승발전되고있다. 특히 조선바지저고리나 치마저고리에서 조선옷의 기본륜곽선과 형태,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동정, 깃, 고름, 소매 등 부분요소들의 크기를 몸매조건에 알맞게 정하여 개성적인 아름다움을 살리고있다.

조선옷의 색갈도 전통적인 색조화수법을 살리면서 저고리와 바지 또는 치마를 서로 다른 색으로 하고 계절과 나이, 기호에 따라 다채롭게 정하고있으며 옷감도 항라와 다색단과 같은 전통적인 비단류만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리용하고있다.

민족의 우수성이 어려있고 독특한 형태미와 아름다움이 있어 우리 겨레 누구나가 사랑하며 즐겨입는 조선옷이야말로 대를 이어 빛내여가야 할 민족의 귀중한 재부이다.

허영준

민족문화유산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별자리그림

우리의 민족문화유산들가운데는 세계적으로 매우 오랜 천문도의 하나로 인정되고있는 《천상렬차분야지도》도 있다.

천문학을 중시한 우리 선조들은 고구려시기에 벌써 일식과 월식, 류성(별찌)과 혜성(살별)의 움직임, 태양흑점 등 당시로서는 매우 희귀한 천문자료들까지 관측하였으며 5세기말~6세기초에 세로 약 2m, 가로 약 1.2m의 돌판우에 천문현상을 새긴 석각천문도를 만들었다.

고구려의 석각천문도에는 당시 수도였던 평양의 밤하늘에서 볼수 있었던 1 467개의 별들이 하나의 원안에 282개의 별자리들로 갈라져 표시되였다. 그것은 당시의 천문학리론과 지식을 쉽게 파악할수 있게 하였고 천문관측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이 명확히 제시되여 력서편찬에 큰 도움이 되게 하였다.

《천상렬차분야지도》는 그것을 대본으로 하고 14세기말의 천문학적실정에 맞게 약간 수정을 가하여 만든것이다.

《천상렬차분야지도》는 너비 122.8㎝, 길이 209.9㎝로서 당시로서는 아주 과학적이고 세밀한 천문도였다.

여기에서는 세차현상 즉 립춘날의 태양위치가 해마다 50.2초씩 서쪽으로 옮겨져가는 현상으로 인하여 고구려때와는 달리 별자리들의 위치에 차이가 생겼으므로 관측자료에 근거하여 천문도의 별자리들을 12.5°씩 돌려놓았다.

《천상렬차분야지도》는 당시 별들의 위치를 빨리 알아내여 천문관측사업을 제때에 정확히 진행할수 있게 하는데서 매우 편리하고 귀중한 지도문건으로 되였다.

그 내용의 정확성과 풍부성으로 하여 《천상렬차분야지도》는 일찍부터 세계에 알려졌으며 중세기 우리 민족의 천문학발전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추어탕

추어탕은 미꾸라지와 다른 음식감을 넣고 푹 끓여 양념한 민족음식이다.

우리 민족이 미꾸라지를 식생활에 리용한 력사는 매우 오래다. 력사자료에 의하면 고려사람들이 미꾸라지를 즐겨 먹었다고 한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기록들에 의하면 미꾸라지가 흙탕물속에서 산다고 하여 니추라고 불렀으며 보통 추어탕과 함께 미꾸라지를 순두부에 넣고 응결시킨 모두부를 가지고 가공한 특이한 추어탕도 있었다.

추어탕은 개성의 특산음식의 하나로 유명한데 그 가공방법을 보면 남비에 기름을 두고 파토막과 생강쪼각을 볶다가 초벌손질한 미꾸라지를 두고 볶은 다음 더운물을 붓고 끓인다.

미꾸라지가 익으면 건져서 살만 뜯어 양념에 무친다. 소고기는 다져서 파, 마늘, 간장, 기름으로 양념한 다음 볶다가 미꾸라지국물을 붓고 끓인다.

여기에 두부를 썰어넣고 끓이다가 고추장, 잘게 썬 쑥갓, 미나리, 풋고추를 양념에 무친 미꾸라지살과 같이 두고 좀 더 끓여 그릇에 담는다.

개성지방의 추어탕은 미꾸라지살을 일단 건져 양념한 다음 다시 국물에 넣고 개성고추장으로 푹 끓이는것이 특징이다.

어느 지방에서나 추어탕을 끓일 때 생강즙이나 방아잎, 산초가루(초피) 등을 넣고 독특한 향기와 구수한 맛이 나도록 하였다.

추어탕을 만드는 방법에는 또한 미꾸라지를 소금물에 넣어 해감을 토하게 하고 깨끗이 씻어 순두부에 들어가게 한 다음 모두부를 만들어 그것을 양념장에 찍어먹거나 넙적하게 썰어 국을 끓이는 방법도 있다.

미꾸라지는 건강에 좋은 식품의 하나로서 소화흡수률이 높고 먹으면 기운을 돋굴뿐아니라 간기능을 회복시키는데 특효가 있다.

본사기자

2019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쟁취

2019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가 중국에서 진행되였다.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조선, 중국, 월남, 우즈베끼스딴, 인디아를 비롯하여 20여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 녀선수 220여명이 참가하였다.

선수권대회에서 공화국선수들은 금메달 7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3개를 쟁취하였다.

녀자 76kg급, 71kg급경기에 출전한 림정심, 림은심선수들은 자기들의 특기를 잘 살려 끌어올리기, 추켜올리기, 종합에서 각각 1위를 하였다.

최전위선수는 남자 81kg급경기 추켜올리기에서 금메달을, 끌어올리기와 종합에서 각각 은메달을 쟁취하였으며 김효심선수는 녀자 64kg급경기 끌어올리기, 추켜올리기와 종합에서 각각 은메달을 받았다.

남자 81kg급, 67kg급경기 추켜올리기에서 리청송, 박정주선수들이, 녀자 49kg급경기 추켜올리기와 종합에서 리성금선수가, 녀자 87kg급경기 종합에서 김은주선수가 각각 2위를 하였다.

오강철, 최효심선수들이 남자 73kg급, 녀자 64kg급경기 끌어올리기, 추켜올리기와 종합에서, 박정주선수가 남자 67kg급경기 끌어올리기와 종합에서, 김은주선수가 녀자 87kg급경기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에서, 김국향선수가 녀자 87kg이상급경기 추켜올리기와 종합에서, 리성금선수가 녀자 49kg급경기 끌어올리기에서 각각 동메달을 받았다.

본사기자

눈피로를 해소시키는 방법 몇가지

눈피로를 느끼는 경우 바닥이나 쏘파에 누워 두눈을 감는다.

그 다음 손으로 눈을 가리운다.

10분동안 조용히 누워있으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

여러번 반복하면 눈근육이 이완되면서 《휴식》하게 된다.

이 방법은 피로해진 눈을 《휴식》시키고 시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다음 콤퓨터앞에 앉아 일할 때 눈을 자주 깜박인다.

이때 눈이 가볍게 마싸지되면서 습윤해진다.

다음 피로해진 눈을 찜질해준다.

진하게 끓여서 식힌 차에 다 솜을 적신다.

쏘파에 앉아 솜을 두눈에 대고 긴장을 푼다.

10~15분이 지나면 눈피로가 해소된다.

다음 혈부위를 마싸지하는 방법으로 눈피로를 해소시킬수 있다.

두눈의 안쪽 끝부분들과 미간사이의 혈부위들을 엄지손가락과 지시손가락으로 1분동안 눌러준다.

두세번정도 반복한다.

시력이 떨어지면서 눈피로가 올 때에는 다음과 같은 눈운동이 좋다.

두눈을 세게 쪼프렸다가 뜨는 동작을 몇번 반복한다.

다음 눈을 10초동안 빠른 속도로 깜빡인다. 쉬였다가 몇번 반복한다.

다음 두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알을 10~15초동안 원을 그리며 굴린다. 쉬였다가 몇번 반복한다.

다음 두눈을 감고 세 손가락끝으로 눈까풀을 마싸지해준다.

이러한 방법을 몇번 반복할수 있다.

본사기자

사색에 제일 좋은 환경

—온도

대뇌의 사색에 제일 좋은 온도는 20℃안팎이다. 이때에는 대뇌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사색하는 능력이 제일 강해진다. 10℃보다 낮은 온도에서 대뇌는 명석해진다고 하지만 문제해결능력이 낮아진다. 35℃를 초과하면 대뇌의 열량소모량이 많아지고 따라서 대뇌가 피곤해지며 사람은 쉽게 성을 내거나 초조해한다.

—공기

대뇌의 활동은 영양소와 공기를 요구한다. 산소가 결핍되면 대뇌의 열량대사가 저하된다. 그리고 대뇌가 충분한 열량을 얻지 못하면 사유기능도 저하된다.

—해빛

정상적인 해빛을 받으면 사람의 시력, 정서, 사유효과가 좋아지고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수 있다. 그러나 너무 센 해빛을 받으면 뇌세포가 자극을 받아 인차 피로를 느끼게 되며 사유기능이 현저히 저하된다.

—색갈

대뇌가 피로할 때 푸른 들판, 바다 또는 하늘을 보게 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정신이 든다. 이와 반대로 짙은 빨간색 또는 짙은 노란색을 보게 되면 정신이 흐리멍텅해지고 졸음이 오며 더 피로해진다.

—노래

대뇌가 피로할 때 유쾌하고 우아한 노래를 들으면 피로가 인차 풀리고 사유기능도 높아진다. 그러나 60dB을 초과하는 노래소리는 사색에 불리하며 사유기능이 푹 저하되게 한다.

본사기자

사화

《평양재사》 (2)

글 리빈, 그림 리성일

한켠구석에서 누군가가 탄식을 했다.

《허! 난사로다. 과거장에서 어려운 글제에 부딪쳤을 때보다 더 딱하군!》

십분 그랬다. 이것은 대중의 기분을 반영한 말이라 할것이였다.

흥성거리던 마당같지 않게 잠시 침묵이 깃들었다.

뜻밖에 공기가 무거워지다보니 누구보다도 불안이 커진 황해감사의 입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 한탄이 새여나왔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가 맹랑하게 파해서는 안되겠는데…》

이런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있었던듯 한 사나이가 불쑥 일어섰다.

《존전에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맹랑스레 파하지는 않을것이니 근심놓으소이다.》

황해감사가 반색을 하는데 평안감사는 미덥지 않은지 찌뿌둥해서 물었다.

《황해감사의 웅색을 풀려는걸 보니 너도 황해도사람일테지?》

《아니오이다. 평양토배기오이다.》

《뭐 평양토배기? 좋아, 어디 황해도내기들이 눈이 뒤집히도록 한번 본때를 보이게!》

평안감사는 여간만 기분이 좋지 않아 또 물었다.

《네 이름이 뭐냐?》

《장대재 사는 김선달이로소이다.》

김선달은 느물느물 웃으며 뒤를 이었다.

《사또님, 몇마디 하겠는데 토막마다 상을 내리시겠소이까?》

평안감사가 크게 웃었다.

《허, 그 녀석 반죽 좋다. 하긴 그래. 평양사람은 배심도 커야 하느니. 내 주머니를 다 털어서도 모자라면 평양에 돌아가 빚을 갚을터이니 그 걱정은 말고 맘껏 사람들을 놀래워라. 〈장부일언 중천금〉이라는 말이 평안감사라고 례외는 아니될터이니까. 허! 허!》

황해감사가 좋아서 맞장구를 쳤다.

《큰 도의 생사를 거머쥔 감사가 일개 서민한테 빚을 진다? 하! 이거만도 만냥어치 웃음거리가 아니겠소.… 존공, 모자라는건 내가 내리다. 등에 잔뜩 빚을 지고서야 어떻게 감영엘 들어가시겠소. 하! 하!》

평안감사가 만족하여 《여봐라, 평양인 김선달 듣느냐? 그만하면 흥정인즉 유감이 없으니 어서 시작하여라.》하고 독촉하였다.

《알겠소이다.》

김선달은 값비싼 얘기라는듯 틀을 차려 두어번 헛기침을 《함! 함!》 길고나서 유유히 입을 열었다.

《밑천을 전혀 들이지 않고 폭리를 얻는 사냥묘리를 말씀드릴터이오니 명심해 들어두시였다가 써먹을 때 부족이 없도록…》

이 서론은 곧 본론으로 이어질수가 없었다.

무슨 까닭인지 벌써 흥분된 좌중이 듣기도 전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법석 끓었던것이다. 누가 사냥을 즐기지 않으랴. 더구나 밑천을 안들이고 큰 리득을 보게 되는 묘리를 얻게 되였은즉 이 아니 호박이냐.

마침 이들가운데 두 도의 감사들이 류달리 사냥이라면 혹하는 취미를 가진 위인들이라 대번에 귀가 항아리만해져서 빨리 아뢰라 독촉이 성화였다.

이쯤 되자 부쩍 성수가 난 김선달은 《첫째, 들오리사냥법!》 하고 호기롭게 허두를 떼고나서 청산류수로 엮어내렸다.

들오리는 천성이 눈은 어둡고 코는 밝은데다가 미욱한 짐승이여서 아무것이나 닥치는대로 막 집어먹고 먹는만큼 줄달아 물똥을 찍찍 내갈긴다.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사냥수를 쓰면 영낙없이 소득이 난다.

든든한 두겹 명주실끝에 낚시를 달고 거기에 돼지비게 한덩이를 꿴다. 그것을 들오리들이 많이 모이는 여울목이나 늪에다 던져넣는다. 날아내린 오리떼가운데서 먼저 본 한놈이 비게덩어리를 훌떡 집어삼켰다가 미처 삭일 사이가 없이 물똥과 함께 《찍!》하고 싸버리고마는데 그러어삼키고…

《이래서 한동안이 지나면 한 낚시줄에 오리 댓놈쯤은 쉽게 걸려들지요. 사람이 줄만 당기면 토실토실 살진 오리들이 넝쿨에 주렁주렁 매달린 오이마냥 줄줄이 끌려옵지요.》

김선달이 능란한 몸짓으로 먹고 내보내는 오리흉내까지 섞어가며 어찌나 실감있게 형용했던지 입을 헤— 벌리고 듣고난 사람들은 수탉이 홰를 치듯 《탁! 탁!》 하고 무릎을 쳐가며 그것 참 묘기라고 경탄을 터뜨렸다.

부잡스러운 들오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게덩이를 삼키며 소란을 피우는 광경이 하도 방불히 안겨왔던지 배를 그러안고 웃어대던 평안감사는 한참만에야 눈굽을 찍으며 《좋아, 좋단 말이야! 엉터리이긴 해도 리치가 그럴듯 해. 여기에는 기지가 있거든. 기지가! 시시껄렁한 상소리를 여기에 견줄수 없지.》 하고 못내 만족해하며 제가 직접 술까지 한잔 권하였다. 그러더니 《내 밑천이 드러나서 뽕이 빠져도 좋으니 어서 그런 얘길 더 하거라. 그런걸 많이 들으면 궁리가 트이느니라.》 하며 또 부추겨댔다.

품앗이와 소겨리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품앗이와 소겨리를 하여 서로 힘을 합치고 도우면서 농사일을 하여왔다.

농사일은 품이 많이 들고 힘겨운 일이므로 혼자나 집안식구끼리 하려면 고되고 농사철을 놓쳐버릴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선조들은 공동로동조직인 품앗이와 소겨리를 무었다.

품앗이란 《품》 즉 로동력이라는 말과 지고 갚는다는 뜻으로 쓰이는 《앗이》라는 말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이다. 품앗이를 다른 말로 《품바꿈》, 《품들이》라고도 하였는데 여기에는 로력을 서로 엇바꾸어가면서 품이 많이 드는 농사일을 해제낀다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품앗이로 논밭갈이와 씨뿌리기, 모내기, 김매기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서 공동로동을 할수 있었다.

소겨리는 주로 논밭갈이와 씨붙임때 부족되는 로력과 축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두마리의 소를 중심으로 무은 로동조직이였다. 여기서 《겨리》는 《결》의 발음이 길어진 말로서 소를 맺는다, 결합한다는 뜻을 가지고있다. 소를 한마리씩 가지고있는 두집의 소를 쌍멍에에 메워서 일하였으며 때로는 소를 가진 두 집과 소가 없는 몇집으로 무어서 함께 일하기도 하였다.

품앗이와 소겨리 같은 공동로동조직을 무어 품을 많이 들여야 할 농사일을 힘을 합쳐 한것은 우리 선조들의 전통적인 미풍이였다.

본사기자

유모아

《먹어야 얼마나 먹겠니》

한 농민이 자기 집 닭들이 터밭에 갓 심어놓은 씨앗을 뚜져먹는것을 보고 아들에게 말했다.

《쇠돌아, 저 닭들을 당장 붙잡아 우리에 가두어라.》

닭을 놓쳐버린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닭들이 옆집 밭으로 달아났어요.》

《그럼 놔둬라.》

《그 밭에도 씨를 뿌렸는데요?》

《닭이 먹어야 얼마나 먹겠니.》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